

전북교육청, 5급 승진심사제 운영

기본계획 설명회 가져... 명부 20%+ 역량평가 80%로 순위 결정

전북도교육청은 19일 오후 전주교육지원청 시청각실에서 2020년 5급 승진심사제 운영 기본계획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10월중에 역량평가를 실시 승진예정자는 내년 1월 이후 승진임용할 예정이다. 5급 승진심사 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20%와 역량평가 80%를 반영해 승진대상자(순위)를 결정한다. 역량평가는 관리자로서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서 작성(40%)을 통해 업무 기획과 문제인식·해결 능력을 살펴보고, 심층면접(집단토론·개별면접 30%)을 통해 국민중심적 사고와 의사소통, 조정통합 능력을 평가하게 되며, 전년도에 도입된 현장평가(10%)는 평가대상자의 직무수행 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 리더십을 검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고서 작성은 직무·사회활동 과정에서 습득 가능한 일반적인 주제 또는 사회 일반 분야에서 제

시된 기본 자료를 보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나아가 조직 상황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심층면접은 집단토론면접(60분)과 개별면접(20분 내외) 등 2단계로 진행된다. 집단토론면접은 3~4명이 무작위로 조를 이뤄 공통의 해결과제에 대한 토론을 거친 뒤 공동의 합의안을 도출해내야 하며, 개별면접은 인성, 역량뿐만 아니라 6급 재직 기간 중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근무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도입된 현장평가는 6급 근무기간 중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되며, 조직 구성원과의 소통 및 협력 정도, 청렴성 등을 검증하게 된다.

한편 역량평가까지 모두 마치면 역량평가기간인 부교육감이 승진심사를 위한 최종 평가 결과를 작성하게 되는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점수와 역량평가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이 결과는 인사위원회에 승진심사 자료로 제공돼 승진의결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정은성 기자

자신의 꿈과 이상 맘껏 펼쳐봐~

도교육청, '푸른꿈 맑은 생각 표현전' ... 20~24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생들의 꿈과 이상을 담은 창의적이고 참신한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북중등미술교육연구회에서 주관한 공모전 '제14회 푸른 꿈 맑은 생각 표현전' 수상작 전시회가 20~24일까지 전북교육문화회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작품 발표 기회를 제공해 창의적인 생각과 정서를 표현하고 자긍심과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원격개학이 실시되면서 공모전은 당초 우려와 달리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비대면 교육의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시화, 회화, 조소, 디자인·영상 공예, 설치미술 등 6개 종목 579명이 응모해 140점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안윤진(안성중 1)학생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박재범·송주희(고수초 2), 김서영(익산어양중 2), 김은지(원광정보예술포고 2), 이지운(양현고 2), 함유정(한국전통문화고 3), 송정욱(영선고 1)이 각 분야별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공모전을 통해 자신의 소질을 계발하고 자긍심과 성취감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독창적이고 참신한 작품 전시회에 많은 관람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도서관 문 연다

열람실 30% 분산 개방 마스크·방역지침 철저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았던 중앙도서관을 다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19일 전북대에 따르면 대학 구성원의 학습 및 연구 활동 지원과 지역민들을 위해 중앙도서관과 각 분관 시설을 개방기로 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단,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 모든 자료실과 자유열람실을 개방하며 개인 및 그룹학습실, 멀티실 학습도서관은 제외된다.

열람실은 방역 지침을 위해 전체 중 30%만 분산 개방하고, 출입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또한 도서 검색 및 좌석발권 시 개인 휴대편안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은는 주제자료팀(063-270-440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10명의 전임 입학사정관으로 구성된 전주대 입학사정팀은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 내실화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다.

전주대, 교육 내실화 지원 프로그램 홍보

고교 진로진학 방향제시·대입전형 준비 학부모부담 완화

전주대학교는 지난 12년간 축적해온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10명의 전임 입학사정관으로 구성된 전주대 입학사정팀은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 내실화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

고 있다.

전주대가 운영하는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 프로그램은 고교-대학 연계 영역과 대입전형 안내 영역이다.

고교-대학 연계 영역에서는 △전주대 진로진학 박람회(여다가 챌린지), △찾아가는 상담실,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진학 설계, △진로심리검사 △직

업·학과·교양 특강, △동아리·봉사 활동 △캠퍼스 진로체험, △학부별 진로진학 아카데미 등을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한다.

대입전형 안내 영역에서는 △찾아가는 입시상담 카페, △입시설명회 및 모의면접, △대학연합 입시설명회, △지역별 고교별 입시설명회 등이다.

전주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의 진로진학 설계에 도움을 주고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전형 준비에 대

한 부담 완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정아 입학처장은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고등학생들이 원활하게 진로진학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지역대학의 소명과 책임감을 갖고 학생, 교사, 학부모가 요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 및 문은는 전주대 입학처 홈페이지(<https://www.jiac.kr/iphak>)나 전화(220-3239)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삼성에스원으로부터 라면 10박스를 기부받았다. 사진 왼쪽-홍순직 총장, 오른쪽-삼성에스원 전주비전대 통합상황실 실장.

“외국인 유학생들 코로나 극복 함께해요”

삼성에스원, 전주비전대에 라면 10박스 기부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삼성에스원으로부터 라면 10박스를 기부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삼성에스원 소속의 전주비전대 통합상황실 유지원 실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유지원 실장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어려워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는 힘든 상황에 있

을 것으로 생각해, 통합상황실 동료 6명이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은 라면 기부에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다.

홍순직 총장은 "라면 기부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산 기미가 있지만 대학, 주변 관계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이번 위기를 빨리 극복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